

계영희 (고신대학교)

수학과 미술의 추상성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 원시미술에서는 추상적인 기하학적 양식이 등장한다. 이는 인간이 개념적 사유를 했다는 증거이다. 인간의 개념적 사유는 사물을 그릴 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리게 하는 것이다.

한편, 중세 유럽의 기독교 미술에서는 성서의 내용만을 표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미술의 내용은 상징적, 비현실적으로 되었고 원근법은 사라졌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예언자들의 기적을 표현하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세 말기가 되자 화가들은 다시 '보이는 대로' 그리기 위하여 투시화법(원근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르네상스 운동은 이것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19세기가 되자 또 다시 인간은 수학과 미술에서 추상화의 작업을 시도한다. 세계 제 1,2차 대전은 이를 가속화시켰으며 오늘날에는 수학과 미술이 컴퓨터라는 가상공간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박창균 (서경대학교)

수학사와 '새로운' 수리철학

수학사의 필요성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수학을 이용한 교육이 수학을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제공하고, 친근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학에 대한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수학사 연구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실용성 때문만이 아닌 보다 근원적인 정당성의 근거를 따지려면 수리철학적 논의를 요구하게 된다. 본 발표는 수학사가 핵심적 과제로 자리잡게 된 수리철학적 배경을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